

기독교세계관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정지희(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I. 들어가기

본 논의는 개혁주의 진영에서 오랫동안 연구되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기독교세계관의 개념과 원천, 그 발전과정과 현대적 조망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소개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우선 기독교세계관의 원천으로서의 아브라함 카이퍼를 시작으로 이후 기독교세계관의 역사적 발전을 그동안 비교적 강조되지 않았던 영성과 마음 개념에 맞춰 간략히 개괄한 후 최근 기독교세계관 논의의 중요한 책인 데이비드 노글의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에서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의 철학적, 성경신학¹⁾의 만남을 소개한다. 이후,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개인과 교회에게 어떠한 전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톰 라이트의 저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와 현대 기독교세계관 연구들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기독교세계관은 마음의 전인격적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실현하는, 복음을 살아내는 이야기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기독교세계관²⁾의 형성과 개념

개혁주의 신학의 신실한 계승자로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기독교세계관

1) 성경신학은 성경의 주요 내용을 구속사적 계시의 점진적인 성취로 읽어가는 신학적 방법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계시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내러티브적 요소를 갖고 있으며 세계관 형성의 재료가 된다. 본 글에서는 문맥에 따라 성경 이야기와 성경 내러티브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참조, 교회용어사전(<http://www.lifebook.co.kr>); 전정구 외, 『성경신학 하나님 나라와 언약적 관점으로 보는』, 부흥과 개혁사, 2019.

2) 기독교세계관은 성경의 기본 틀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창조(creation), 타락(fall), 구속(redemption), 완성(consummation)이 성취 된다는 원리를 전제로 삼는다.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권적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의미는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까지 확장된다고 본다. 기독교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과 완전성을 강조하며 사탄에 의한 전 우주적 타락을 인정하면서도,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은총(일반은총)을 인정한다. 동시에 예수님을 통한 인간과 전 우주의 구원과 성화, 종말의 완성을 내다보는 거시적인 신학이며 전통적 조직신학(신론, 기독교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의 방식이 아닌 성경적인 개념과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이론이다. 기독교세계관은 개인(영혼)구원과 교회성장만 중시하며 반지성주의적이며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성향을 가진 근본주의적 복음주의를 비판한다. 이런 개념은 기독교세계관 학자들의 주요 논의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운동의 실질적인 창시자라고 볼 수 있다.³⁾ 그는 칼빈과 네덜란드 '개혁주의의 전통', 독일의 생철학자 딜타이의 '세계관의 철학', 독일의 가톨릭철학자 프란츠 폰 바더(Franz von Baader, 1765-1841)의 '신지학적 철학',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신학자 제임스 오어(James Orr, 1844-1913)의 사상을 수용하고 용해하여 기독교세계관의 개념을 발전시켰다.⁴⁾ 그의 사상의 핵심은 영성에 근거한 실천에 있는데 평생에 남긴 저작들과 정치 활동,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실천적이고도 내면적인(영적인) 삶을 철저히 추구했는가를 알 수 있다.⁵⁾

아브라함 카이퍼는 근대주의철학과 자유주의 신학과 그 뿌리인 계몽주의 사상에 대한 강력한 반격으로서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를 발전시켰다. 그에게 있어서 칼빈주의는 인식론적 논의를 넘어 목회의 경험과 언론,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지나는 동안 '영혼의 확산'으로 수용된다. 긴 신앙과 학문의 여정 이후에 프린스턴대학에서 1898년 강의한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는 그의 사상의 원숙함을 드러냈다. 카이퍼에게 기독교세계관은 근대의 모더니즘 세계관과 대립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일관되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시하는 이론체계이자, 실천의 체계이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세계관을 '삶의 체계'(Life-system) 또는 기독교적인 '삶과 세계에 대한 조망'(a life- and world-view)이라고 부른다.⁶⁾ 카이퍼는 이렇듯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이성과 학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근대적 세속주의에 대해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대응하려 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 원했던 기독교세계관의 창시자 카이퍼의 사상을 데이비드 노글(David Naugle)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범위는 인간을 넘어 우주적이며 자연을 회복한다. 이는 우주적 회복과 구속을 의미한다. 2)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피조계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각각의 영역의 주권을 인정한다. (3) 하나님은 문화명령을 통해 인간에게 근본적인 복과 일을 주시고 피조계의 점진적 발전을 이끌어 가신다. (4)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반드시 영적 반정립이 동반된다.⁷⁾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전체를 놓고 서며,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목적이라고 보았다. 이는 지성, 영성, 감성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순복함을 의미한다. 피조물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은 인식론적 논의의 차원을 넘어 전인격을 포괄한다. 따라서 '영성을 바탕으로 한 전인격적 세계관을 제시한 기독교세계관의 창시자로서의 카이퍼의 재발견은 그동안 기독교세계관이 몇몇의 지성 운동이며 엘리트주의라는 오해, 계몽주의의 변주곡이라는 시선들을 거두게 한다.

3)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로부터 온건한 칼빈주의적 신앙을 받아들였으나, 대학시절 레디든 대학에서 모더니즘을 수용하여 칼빈주의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 후 시골 베이스트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그곳의 정통 칼빈주의 신자들과 교제하면서 경건하고 생동감 있는 칼빈주의를 받아들게 되었다. 참조: 최태연, 「아브라함 카이퍼와 케직 영성」, 제 64회 기독교학술원 월례포럼 자료집, 2017. 11.

4) 최태연, “아브라함 카이퍼와 기독교세계관 개념의 네 원천”, 미간행 논문, 2016, 요약발체.

5) 아브라함 카이퍼와 케직 영성」 참조. 최태연은 위의 논의를 통해 기독교세계관의 실천적이고도 영적인 뿌리를 충분히 부각시키려 했다.

6) 최태연 엮음, 아브라함 카이퍼,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상·하),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자료집, 2016. 21.

7)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박세혁 역, 서울: CUP, 2018. 46-51 내용을 참조.

Ⅲ. 기독교세계관의 발전과 수정

독일 자유대학의 법철학 교수였던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는 카이퍼의 기독교세계관을 받아들여 그 안의 영적·종교적 동인을 부각시켰다. 그는 인간의 심연에 있는 논리성과 경험의 차원을 넘어서 '무시간적이고 초월적 동인들이 작동을 서양사상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논증하였다.'⁸⁾

기독교세계관 운동과 영미 대중에게 폭넓은 영향을 준 사상가인 프랜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1912-1984)는 주로 문화해석을 통해 복음을 변증함으로써 많은 지지자를 얻었다. 그는 서양사상을 두 가지 선으로 구분하여 해석하고, 현대 계몽주의와 모더니즘이 결국 '절망선' 아래로 현대인들을 떨어뜨린다고 보았다. 이는 지식, 의미, 가치를 잃어버린 철저한 세속화의 결과이다. 그는 공동체를 창설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책을 저술하면서 모든 삶의 지평에서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려 했다. 이것은 인간 모든 존재에 대한 모든 것을 기독교적으로 수용하고, 전달하려는 시도였다. 그는 "인격적, 지적, 문화적 관계를 가지고 성경적 신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함양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자극"⁹⁾하였다.

휘튼대학의 철학교수로서 기독교세계관의 형성을 신학적, 철학적, 과학적으로 분석한 아더 홈즈(Arthur Homes)는 현존하는 다양한 세계관을 분석하고 나름의 성경적 대안을 제공하려 하였다. 그는 딜타이를 분석하며 히 전(pre)이론적인 세계상(象)이 세계관이라는 이론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믿음위에 이론적인 구조가 형성된다는 의미로서 도예베르트가 주장한대로 홈즈 역시 세계관의 중심이 전이론적이고 종교적인 동인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세계관이 제공하는 기능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한다. "사유와 삶의 통일성을 제공하는 원천으로서, 사고의 지침으로서, 선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희망으로서,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하는 원리이다."¹⁰⁾

리차드 미들턴(J. Richard Middleton)과 브라이언 월쉬(Brian J. Walsh)는 세계관을 문화형성의 뿌리라고 보았다. 또한 언어와 세계관의 상호작용을 밝혔다. 세계관은 삶에 대한 시각이면서 동시에 '삶을 위한 시각'이다. 그러나 언어와 세계관 모두 다 최초의 결단은 그들의 유명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신앙적인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특히 서구의 세계관 뿐 아니라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보다 성경적인 믿음에 가까운 세계관을 지닌 북미 인디언을 연구하였다.¹¹⁾

제임스 사이어(James shyer)의 세계관 정의는 고전처럼 인식되었다. 세계관이란 "우리가 사는 세계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틀"이다. 세계관은 모든 사상과 행동의 준거틀로서 작용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토대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결단이며 근본적인 마음의 지향"¹²⁾이다. 그는 기독교세계관이 다음의 7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본다. 그것은 (1) 참된 최

8) 다음을 참고하라. 헤르만 도예베르트, 『서양문화의 뿌리』, 문석호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9) 제임스 사이어, 『코끼리 이름짓기』, 홍병룡 역, 서울: IVP, 114

10) 아더 홈즈, 『기독교세계관』, 홍병룡 역, 서울: IVP, 2007. 제2장 '세계관의 분석' .

11) 미들턴, 월쉬, 『그리스도인의 비전』, 황영철 역, 서울: IVP, 1997. 38~43 요약. 주요 질문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등이다. 톰 라이트는 '지금은 어떤 때인가?' 라는 질문을 더하였고, 이 후 세계관 연구자들은 이 질문들을 다양하게 확장하였다.

고의 실재 (2) 외부세계의 본질 (3) 인간존재 (4) 죽음 이후의 세계 (5) 바른 인식의 가능성 (6) 옳고 그름의 기준 (7) 역사의 의미 등이다. 이 질문이 붕괴된다면 현대의 이신론, 자연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신비주의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¹³⁾

위와 같이 기독교세계관의 개념의 발전은 '기독교'와 '세계관'의 개념이 어떠한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각각의 개념을 풍성하게 도출해 내는지에 대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발견한 주된 이슈는 다음과 같다. '기독교'의 복음은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한 개인의 삶과 역사를 추동하는 근본 원리인 세계관은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기독교세계관은 인식론인가 존재론인가? 언어와 문화 안에서 기독교세계관 안에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기독교 세계관의 전인격적 접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전 존재로 서기를 열망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순복하는 영성에서 출발한 것을 시작으로, 현대의 논의는 보다 더 깊이 성경의 뿌리에 다가간다. 본 연구자는 특히 마지막 제기한 질문의 내용을 데이비드 노글의 세계관에 대한 연구와 톰 라이트(Nicholas Thomas Wright, 1948-)의 저작을 소개하며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IV 새로운 종합: 데이비드 노글

노글은 기독교세계관의 원천, 역사, 사회, 신학, 심리학, 철학에 이르는 다양한 개념들이 세계관 개념과 만나는 지점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임스 사이어에 의하면 데이비드 노글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¹⁴⁾ 본 연구자가 주로 인용할 내용은 데이비드 노글¹⁵⁾ 그의 탁월한 저술인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제 9장의 세계관에 대한 신학적 고찰, 제 10장의 세계관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다.¹⁶⁾ 특히 제 9장에서 노글은 성경신학이 기독교세계관과 만나는 지점을 밝히고 있다.

사이어는, 노글 역시 세계관 전통을 따라 세계관을 존재론에 기초하여 정의하고 있지만 이에 더 나아가 세계관의 특징을 '설화적 기호들로 이루어진 언어체계'¹⁷⁾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세계관을

12) 제임스 사이어,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 IVP, 2003, 23

13) 제임스 사이어, 『지성의 제자도』, 정옥배 역, 서울: IVP, 1997, 196~197 요약

14) 제임스 사이어, 『코끼리 이름짓기』, 홍병룡 역, 서울: IVP, 2007, 53

15) 델러스침례교대학교 철학 교수이며, 탁월한 기독교세계관 전문가이기도 한 노글은 매년 “Summer Institute for Christian Scholarship” 를 개설해 델러스침례교대학교(Dallas Baptist University)의 교수들을 위한 10주간의 강사 심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Reordered Love, Reordered Lives: Learning the Deep Meaning of Happiness 등이 있다. 2018년 한국어로 번역된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WORLDVIEW: The History of A Concept)는 크리스챤너티 투데이 2003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6) 그는 제 9장에서 세계관들과 대비되는 기독교세계관의 문제를 다루면서, '객관성의 문제,' 주관성의 문제,' 죄와 영적 전쟁의 문제,' 은총과 구속의 문제 '를 신학적-세계관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있다. 제10장은 '세계관과 기호학','세계관과 서사','세계관과 이성','세계관과 해석학','세계관과 인식론'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글에서는 WV로 지칭한다.

17) 『코끼리 이름짓기』, 63.

상징-은유론을 바탕으로 하는 기호론으로 해석한 그의 이해는, 현대철학에서의 언어이론, 기호학, 존재론 등의 논의와 함께 제시되는데, 본 연구자는 이것은 기독교세계관을 현대 학술적 용어로 번역해낸 것과 같은 성과라고 본다. 특히 기호와 언어 안에서 은유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에 대한 정의는, 세계 안에 있는 존재자가 근본적으로 이미 앞서 이룩된 언어적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자로 살아감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식론적이면서 존재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어는 더 나아가 노글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 바로 노글이 기독교세계관의 전인적인 변화 개념과 성경의 구속되어 새로워진 마음 개념의 유사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관적인 의식 처소인 마음에 닮을 내리고 있으며, 마음이야말로 인생관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세계관의 기능으로 간주되는 것을 발휘하는 결정적인 수행자이다.”¹⁸⁾ 노글은 다양한 성경본문을 통해서 지성, 정서, 의지, 영적인 처소로서의 마음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도 마음이 사람의 영적인 핵심이며 이것을 중심으로 삶이 영위된다고 가르치셨음을 밝힌다.¹⁹⁾ 실제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은 유기적으로 연관된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행동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낸다.²⁰⁾ 그렇기에 기독교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나는 세계관이 인간 마음의 불가피한 기능이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인 인간의 정체성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나는 ‘창조, 타락, 구속’의 도식이 성경의 열개이며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기초임을 깨달았다. ”²¹⁾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역사에 진입하면서 피조물의 마음 즉 전인격을 새롭게 하며 그분을 알게하시는 지식으로 인도한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언어와 삶을 통해 실현되고 기록된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은 노글이 상징-은유의 내러티브로 성경을 해석하는 맥락과 유사하다. 최근의 기독교세계관 학자들은 성경 내러티브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야기로 체험되고 전달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우 풍성한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 모으는 실질적인 지평이 된다.

노글은 무엇보다 성경이 열어 보이는 세계의 핵심적인 내용들, 즉 진리의 내용들에 대한 강조를 잊지 않는다.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신학적, 기호학적, 심리학적 논의를 지나면서 노글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세계관을 정의하고 해석해내지만, 이러한 방법론의 핵심은 성경 내러티브 그 자

18) WV, 455.

19) WV 제 9장은 다음을 말한다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지혜와 법으로 만물을 설계하셨다면, 그분이 인간 지성과 그것의 인지 능력을 설계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사람들을 만드실 때 그들의 삶과 관점이 인간 마음의 신념 내용(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는 마음을 지배하는 기호 현상의 체계 혹은 서사적 틀)으로 이뤄지게 하셨다면, 비록 인간의 유한성과 죄인됨, 구속의 경험에 의해 언제나 제약을 받지만, 우주에 대한 지식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 『코끼리 이름짓기』, 56.

21) WV', 21.

체가 열어 보이는 세계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은, 그것이 존재론적이든 해석학적이든, 그 성경 내러티브의 내용과 주제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도에게 열어 보이는 참된 이야기인 복음이 세상과 존재자에 대한 참된 이야기, 즉 진리인 것이다. 그것은 참된 세상의 시작과 타락,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보여주며, 그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 존재목적, 문제의 이유와 해결에 대해 열어 보여준다. 기호와 언어 안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세계관의 이름으로 지속되며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그 세계관에 집을 짓고 살아간다. 이 이야기의 종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과 궁극적 성취에 이미 놓여있다.²²⁾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언제나 시원적(Arche)이고 신비롭다. 특히 상징-은유를 다루는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노글은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인간에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며,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사건을 성례전적으로 해석한다. 요약하면 노글의 기독교세계관 정의는 존재론(삼위일체 하나님)과 주관적 실재(마음)와 언어체계(의미와 의미의 해석)를 덧붙이면서 해석학적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노글의 관점은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기독교세계관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이러한 내용이 개인과 교회에 어떠한 실천을 요구하는지에 대하여 본 연구자는 톰 라이트의 논의를 인용하고자 한다.

V. 기독교세계관의 실천

노글은 하인리히 쉐리어의 개념을 인용하여, 기독교세계관과 세속과의 대결이 성경의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²³⁾ 한 사회에 만연한 중심 가치와 사상, 문화적인 분위기, 윤리적 기준은 개인과 교회에 영향을 끼치며,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 일을 대하는 태도, 궁극적으로 존재 자체에 대해 규정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세계관은 엄밀하게 타락한 세상가운데 펼쳐진 하나님나라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결은 피할 수 없다. 특히 계몽주의적 낙관론과 실용주의, 세계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이러한 세속주의와 경쟁하며 그보다 더 진리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낙담하고 실패하며 고난 당하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리에 대한 변증과 선포를 포기할 수 없다. 라이트는 매우 낙관적이고 진보적인 사고 속에 빠져 있는 오늘날의 세속주의가 기본적으로 세계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끊임없이 인간의 진화를 믿는 이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대신 인간 스스로 구축하는 지

22) “창조 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고, 새 창조 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기 위해 마음속에 그분이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이, 사탄의 유혹이 초래한 맹목성 안에 파고들어 오신다(고후 4:6).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세계와 세계관이 열린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빛 안에서 보고 명확히 해석할 수 있게 된다.” WV, 371

23) “하인리히 쉐리어(Heinrich Schlier)는 “세계관 전쟁”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의 세계관”의 핵심적 구성 요소라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기초해 세계관, 혹은 그가 한 문화의 “영적 분위기”라고 부른 것이 “그의[사탄의] 지배의 주된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본문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구절 속의 “공중”이란 말의 의미를 이어지는 구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공중”은 사탄이 그 권세를 행하는 문자적인 영역일 뿐 아니라 맥락상 비그리스도인들의 반역을 부추기는 보편적인 영을 지칭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쉐리어는 이 말이 중요한 사회문화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WV, 365.

식에 의존한다. 교육과 열심히 일함으로, 창조와 새 창조대신 과학과 기술이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라이트 다음과 같이 그 이면을 폭로한다. 진보신화가 시대를 걸쳐 인류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한 세계관이라는 것이다.

“진보신화는 첫째, 악을 막을 수가 없다... 둘째, 만약 ‘진보’가 결국 우리를 유토피아로 데려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악의 도덕적 문제는 다뤄지지 않는다...셋째, 진보의 신화는 악 자체의 성질과 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핵심적 중요성을 보지 못한다.”²⁴⁾

반면 기독교세계관은 제임스 오어가 명확히 발견했듯이²⁵⁾ 기독교를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한다. 라이트는 이마-아직의 시간 안에 놓인 성도와 교회의 자리란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으로 인해 갖게 된 새로운 정체성 안에 있음을 강조한다. 즉 기독교의 희망은 언제나 부활에서 출발한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부활과 함께 할 때 더 큰 의미를 갖게 하며, 이 부활은 궁극적인 희망을 낳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창조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희망이지만, 그것은 다가올 종말론 성취만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삶 가운데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새 창조를 통해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도들이 수도원으로 가지 않고 인생의 광야와 잔인한 현실세계와의 투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현재 대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된 창조를 나타내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징표들을 보여 주라는 부름을 받았음을 의미한다.”²⁶⁾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올바른 반응은, 하루의 일상가운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실’ 그 때의 궁극적 상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그 날을 미리 예견하고 누리면서 현재를 일하는 것이다.²⁷⁾

기독교세계관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성경적 종말론과 소망을 명확하게 밝혀 준다. 그것은 계몽주의적 세속주의라는 우상이 속삭이는 달콤한 유혹과 비교할 수 없다. 자존적이고 자율적이며 진보를 향해 달려가며 소비로 존재를 대체하는 우상의 거짓말은 참된 소망의 도래를 견디지 못한다. 그러한 실체는 우리를 놀랍게 한다.²⁸⁾ 즉 부활은 교리적이거나 선언적이거나 증명과제가 아니다. 역사적 실체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은 전인적 변혁으로, 세상은 하나님나라의 창조를 회복하고 완성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추동력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복음을 원하신다.

24) 톰 라이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나라』, 양혜원 역, 서울: IVP, 2012, 124.

25) 오어는 실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전망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강조한다. 기독교에만 하나님, 인간, 죄, 구속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관점이 있으며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형성한다.

26)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나라』, 371

27)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나라』, 322~323.

28) 라이트의 이러한 선언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밝히듯이, 희미하게 보인 진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체로서 종말에 명확히 보이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규범적이고 표준적인 이야기로서 궁극적으로 전체주의화를 반대한다. 그 이유는 성경 내러티브에 스며있는 고난에 대한 철저한 민감성과 그 이야기를 자기편을 위해 편협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창조의도 때문이다."²⁹⁾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기독교세계관의 자리는 계몽주의적 낙관주의와 정확히 대비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눈 먼 자들을 눈 뜨게 하시는 메시아적 사역을 행하시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분리된 자리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교회는 웃는 이들과 함께 웃어야 하지만, 우는 이들의 곁에 머물며 가난과 아픔을 어루만지는 치유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 종교적 거대 담론으로 제시하여 지성적이고 억압적인 차가운 이미지를 주어서도 안된다.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과 세상과 타협하는 것 사이의 분별 또한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실제로 성경의 진리선포는 항상 흠여지고 고난당하며 주도적인 세계관적 억압을 거부한, 남은 자들을 향한, 그들을 위한 내러티브였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 받은 이스라엘은 제국과 반대되는 실재를 보여주기 위해 부름 받았다. "성경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새로운 질서에 대한 비전과 실천에 힘을 불어넣을 대안적 전망이 있다."³⁰⁾

공동체에서의 나눔, 안식일의 준수, 가난한 자들을 돌봄, 그것을 넘어서 제국 안에서 제국을 전복시키는 소명(예레미야)은 구약과 신약 공동체에 두루 주신 사명이다.³¹⁾ 창조세계의 풍성함과 공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본문이 증언한다. 언약백성의 삶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화해를 나누고, 억눌린 자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대안적 윤리 공동체를 살아내는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그 화해의 사역에 근거한 윤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복음을 살아냄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순종과 십자가 지는 삶, 애통하고 애통하는 삶, 먼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의 세계 안에서 의와 살롬을 추구하는 것이다.³²⁾

맺음 : 기독교세계관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

라이트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은 종말론적 성취에서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새 창조를 통해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글을 맺는다.

"하나님은 무한히 온유하시며,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원래 만드신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임을 알고 깜짝 놀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로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되면 어떻게 그와 똑같은 자유와 용서의 온유한 선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제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29) WV, 146

30) 미틀턴, 왈쉬,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세계관』, 김기광, 신재은 역, 살림, 2011, 375

31) 왈쉬와 키이즈마트의 『제국과 천국』은 이러한 소망을 매우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32) 브라이언 왈쉬, 『세상을 뒤집는 기독교』, 강봉재 옮김, 새물결플러스, 2012. '제2장 역사적 종말에 선 기독교 소망' 참조.

기도로, 용서와 빛의 감면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부활의 진리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계로 와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간다.”³³⁾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 방식과 같다. 즉 빈곤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 환경을 돌보고 전쟁을 그치는 일, 테러와 같은 악을 대하는 자세, 일관된 생명윤리, 정직한 정치인을 뽑는 것 등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사적인 영역뿐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선포되어야 한다. 기독교세계관을 열고 발전시킨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나라의 바른 의를 세워가는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결합되어야 한다. 이미 기독교 신앙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례라는 훌륭한 유산과 더불어 묵상과 의전과 은사와 열정, 박애주의 등의 많은 영적성장을 위한 자원이 있다. 이러한 자원이 필요한 이유는 성도와 교회의 자리는 아직 전투의 현장에 살고 있으며, 죄와 악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전방위적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 과정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투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께서 채워가시는 임계점이 있다. 즉 이 비전에 대한 우리 자신의 실존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지만, 이 비전의 지속성과 충성을 위해서 개인과 교회에 모두 부여해야 하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이루신다. 따라서 임계점에 대한 인식은 의심의 해석학을 넘어 신뢰의 해석학으로 나아가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는 태도이다.³⁴⁾ 그것은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지성과 모든 존재 영역을) 역사이다. 낸시 피어시(Nancy Randolph Pearcey)가 강조하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생명을 얻는 존재들이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라고 선언하는 자들이다.³⁵⁾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려는 성도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은 문인 것이다. 악이 승리한 것 같은 시대 가운데, 평안하다고 외치는 시대에, 인간 스스로를 섬기는 우상의 시대에, 중력과 같이 우리를 늘 휘감는 '은밀한 세계관'의 시대가 그 짙은 어둠을 향해 전진해갈 때,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새벽은 더 가까운 것이다.

세속화와 거대한 근대주의에 맞서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고 진리를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주권에

33) 라이트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탁월한 저술을 통해서 무엇보다 현재 부활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소망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내야 하는 체험이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 신자들의 삶의 반응과 깊이 연관된다는 점은 조지 래드 등 다른 성경신학자들의 동일한 입장이다. 래드의 하나님 나라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역사 안으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그 나라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 땅위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완성을 향해 나가는 나라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반응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의 세계가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가 실현됨과 동시에 그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실제적으로 백성 됨을 누리는 축복의 장이 되는 것이다. 그의 기여는 미래에 대한 열린 자세에서 빛을 발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윤리적인 긴장과 순종과 겸손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자들은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옳다' 할 수만은 없다. 언제나 미래를 향한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다. 참조, 웬델 윌리스, 『하나님 나라 - 20세기 주요 해석』, 제3장, 정훈택 감수, 박규태 · 안재형 옮김, 서울: 솔로몬, 2011.

34) 노골은 프랑스의 기독교철학자이며 해석학자인 폴 리코르(Paul Ricoeur)의 해석학적 방법론을 수용하여 현대철학에 대한 비평을 시도한다. 본 연구자 역시 동의한다.

35) 낸시 피어시의 탁월한 저서 『완전한 진리』의 제13장에서 영성과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논의를 보면,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과 윤리적인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되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사건이 개개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일으킨 성령의 역사임을 더 확실히 이해하게 된다.

순복하고 그리스도의 연합과 사랑 안에 거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귀한 유산인 기독교세계관은 오늘 날에도 제시의 방법이 상황화 될 뿐, 본질적으로 진리임에는 분명하다. 그리스도인 참된 실재, 즉 진리를 살아내려는 마음의 동기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비가시적 교회를 포괄하는) 하나님나라 비전을 향해 방향 지워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행동하고 기원으로 삼으며 전승되어지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나라 비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성취된다. 이를 지속하는 동인은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며, 기독교세계관은 바로 이러한 전인격적, 전우주적 소망을 담지한다.

참고문헌

- 낸시 피어시, 『완전한 진리』, 홍병룡 역, 서울: IVP, 2006.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박세혁 역, 서울: CUP, 2018.
N. T. 라이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양혜원 역, 서울: IVP, 2012.
미들턴, 월쉬, 『그리스도인의 비전』, 홍병룡 역, 서울: IVP, 1997.
브라이언 왈쉬, 『세상을 뒤집는 기독교』, 강봉재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웬델 윌리스, 『하나님 나라 - 20세기 주요 해석』, 정훈택 감수, 박규태·안재형 역, 서울: 솔로몬, 2011.
제임스 사이어, 『코끼리 이름짓기』, 홍병룡 역, 서울: IVP, 2007.
제임스 사이어,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헌수 역, 서울: IVP, 2003.
최태연, “아브라함 카이퍼와 기독교세계관 개념의 네 원천”, 미간행 논문, 2016.
최태연, “아브라함 카이퍼와 케직 영성”, 제 64회 기독교학술원 월례포럼, 2017.
최태연 엮음,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상·하),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자료집, 2016.
헤르만 도예베르트, 『서양문화의 뿌리』, 문석호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